나를 위안 하는 사랑의 고통

마음으로 듣는 음악 영화(에로티슴, 코메디)

카르멘* opéra comique, 에로티슴

La famille Bélier : 양씨네, un belier : 거세하지 않은 숫양

"우리는 마음의 음악을 듣는다.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겐 멋진 일이다." – 생텍쥐페리, <성채>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과 대면한 처지치고는 영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분이 언짢아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녀석에게 털어놨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한 번도 양을 그려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다시 그려 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뱀 그림을 말이다.

그러자 녀석은, "아니, 아니, 보아 뱀 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 뱀은 무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 사는 곳은 아주 좁아.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 줘!"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렸다.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건 벌써 병이 심한데. 다시 하나 그려 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숫양인 걸. 뿔이 달렸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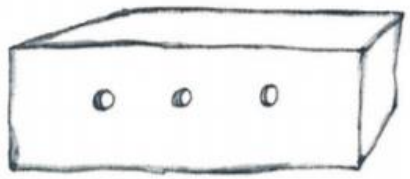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대충 끼적거려 주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음악다운 음악의 기능

1. 진정한 음악(예술)을 통해 기이한 길로 들어서며 진정한 하나 되는 가족

2. 음악의 다양성 : 대중 오디션 가수에서 최고 소프라노까지
   가스파레 스폰티니(1774~1851)의 오페라 <**베스타 여사제**La Vestale>(1807) :
   사랑을 택한 죄로 죽음에 직면한 줄리아, 용서 받아 사랑을 이룸(에로티슴)
   <아이다> <노르마> <진주조개잡이> 원조

   아리아: '오 불행으로부터 수호하는 신의 정결이여O nume tutelar degli infelic'
   마리나 메셰리야코바Marina mescheriakova

   최고 녹음: 벨 칸토 드라마틱 소프라노 로자 폰셀(Rosa Ponselle, 1897-1981)

3. 루안 엠므라 신인 여배우, 기성 인기 배우 에릭 엘모스니노
   (파리 콩세르바투아르 출신 연극인, 겐스부르 역, 제인 버킨, 샤를로트)

<la Maladie d'amour 사랑의 고통>
고전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샹송

사랑(이라는) 병이 퍼지고 또 퍼져가네
7살 짜리 애들부터 77세 노인의 마음에까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노래하고 노래하네
강물 침대 위로 금발과 잿빛 머리를 맺어주는 강물은

사랑 병은 남자를 노래하게 하고 세상을 넓히네
사랑 병은 때론 평생 고통을 주지
사랑 병은 여인들을 울리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게 하지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고통에서 치유될 때랍니다

사랑 병은 영어 교사 순진한 매력에 홀딱 빠진
교실 의자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을 사로잡기도 하네
사랑 병은 지나가는 낯선 행인에게 벼락을 내리고
벼락 맞은 그는 사랑의 향기를 결코 잊지 못하리

<보들레르 지나가는 여인> 영감, 작크 르보, 미셸 사르두 작곡
파헬벨 캐논 멜로디
이영훈 <옛사랑> 같은 노래(캐논 후렴)

Je Vais T'aimer 그대를 사랑하리

사드 후작 같은 남자들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항구의 창녀들 얼굴을 붉히게 할 만큼,
모든 허드레 풍문에 용서를 구하게 하고,
여리고 성전 벽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댈 사랑하리.

당신의 눈 속에 지옥이 불타오르고
신이 온갖 벼락들로 심판하고
당신의 가슴과 모든 성인을 일으켜 세우게,
우리 손이 기도하고 간청하도록
그댈 사랑하리.